

공 요달하면 지혜 나와서 더불어 사는 세상 옵니다

<空>

실천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11월 21일, 깨달음의 길을 찾는 백양사 아단법석의 첫 번째 법주로 나선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은 '실천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에 대해 설명했다.

고우 스님은 "팔만대장경을 굳이 한 마디로 말하면 '공(空)'이라 할 수 있다"며 "연기된 자성(自性)으로서의 공을 깊이 이해하기만 해도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스님은 "누구나 '본래 부처'로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살면 나와 남이 모두 즐겁고 편안하게 된다"며 수행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실천수행을 당부했다.

다음은 법문과 토론의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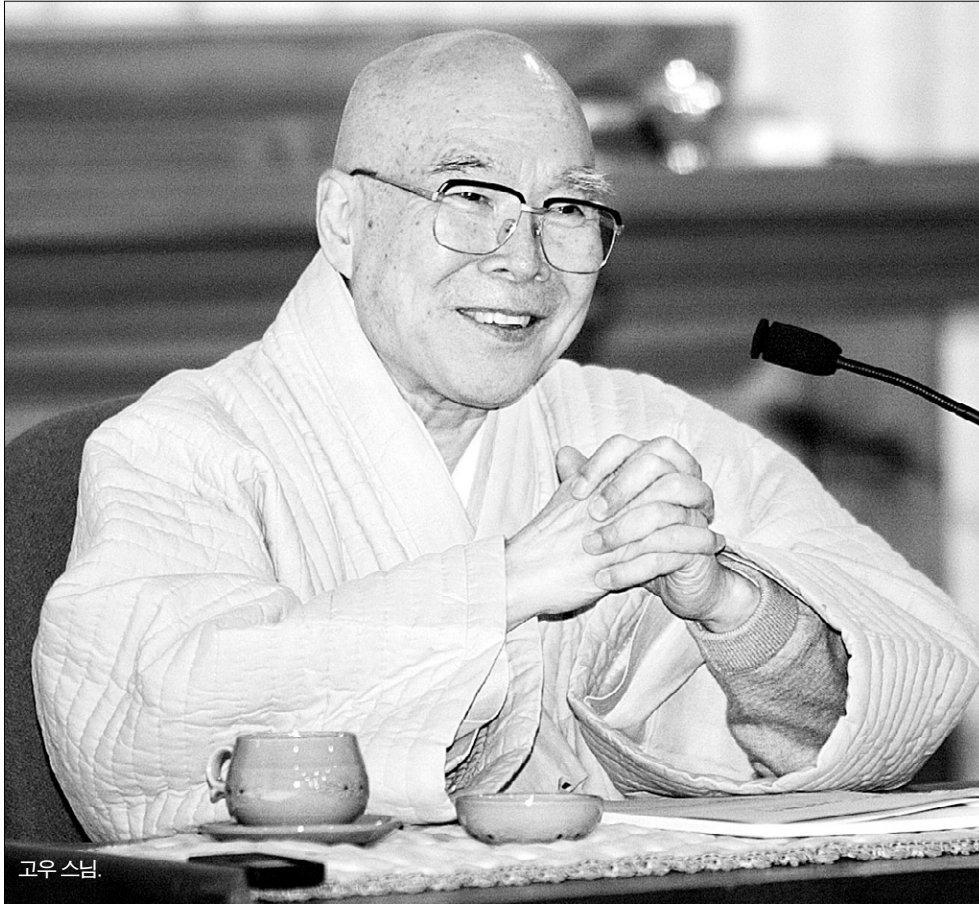
불교라는 깨달음의 길을 가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운문 선사는 "매일 매일이 좋은 날이다"라고 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속상하거나 즐거워하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행복할 수 있을까. 세상에 나라와 나라, 집단과 집단, 가족과 직장의 구성원간, 개인과 개인간, 또한 스스로의 갈등으로 한 시도 편할 날이 없기에 어떻게 보면 '날마다 좋은 날'은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禪)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한다면 못할 것도 없이, 우리는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다. 모든 분별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선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깨달음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지만 깨달음은 생활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 생활을 떠나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토끼뽕(토끼의 뽕)은 상상으로만 존재하기에 얻을 수 없다'를 구하는 것과 같다. 생활 하는 마음과 불교를 공부하는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 깨달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서, 바뀐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삶이 아주 가벼워지고 행복해진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가르치신 깨달음은 무엇인가. 무엇을 깨달았길래 행복을 느꼈을까. 나는 선방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전통적인 선을 바탕으로 깨달음에 대해 말해볼까 한다.

중국 당나라 때, 조사선의 대종장인 마조 선사에게 마조 스님이 찾아갔다.

마조 선사가 물었다.
"어디에서 왔느냐?"
"월주(越州 대운사(大雲寺)에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무엇하러 왔는가?"
"불법을 구하려 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불법이 어찌 나한테 있겠는가? 그대는 왜 자기 집에 있는 보배를 돌보지 않고 밖에서 찾았는가?"
마조 스님은 무슨 뜻인지 몰라 눈을 깜빡이다가 되물었다.
"제게 보배가 있단지요? 무슨 뜻인지..."
마조 선사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고우 스님.

"내게 묻고 있는 그대가 바로 보배일세. 그대 배 안에 모든 보배가 가득 갖추어져 있어 평생 써도 바닥이 나지 않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밖에서 찾다니는가?"

이 말에 마조 선사는 크게 깨달았다.

이러한 문답이 바로 선의 전통이다. 그런데, 대주 스님이 깨달은 보물창고는 깨닫지 못한 건, 깨닫지 못한 건 누구나 갖고 있다는 소식이 더욱 놀라운 이야기다. 누구나 본래부터 보물창고가 있다는 것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말한다. 깨닫고 안 깨닫고와 상관 없이 모두 '본래 부처'이건만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있지만, 그 많은 경전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대주 선사와 같은 선사들은 그 어렵고 복잡한 경전의 가르침을 한 순간에 '순간 깨침(頓悟)'을 통해 체득한 것이다. 선의 전통은 순간 깨침을 강조하지만, 이것이 선에 안 있는 전통은 아니었다.

부처님 당시도 순간깨침을 한 분이 많다. 교진어를 비롯한 다섯 비구도 2-3주만에 깨달았다. 부처님 당시 순간깨침을 한 분이 적지 않음을 원시불교를 전공한 분들도 인정하고 있다. 선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 당시의 순간깨침 하는 전통을 이어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은 순간깨침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런 길이 존재하

였기에 가라는 것이다. 화두 참선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방법이다. 최선은 조사스님들이 수행자가 묻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이라고 일깨워주는 것이다. 순간깨침이 흔하지 않다고 해서 그 전통마저 부정하면 안된다.

그러면, 깨달음을 교(敎)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팔만대장경이 포장은 방대해도 내용, 즉 깨달음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다.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든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존재의 원리를 이야기한 공(空)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선에서는 '공'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는 이야기다. 물론 이들을 부정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열반경>은 공을 자성(自性)이라 표현했다. 자성이 있다고 보면 힌두교의 아트만(atman)을 연상할 수 있는데, <열반경>의 자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표현했다. 자성 역시, 중도 연기된 것으로 공(空)과 다를 바 없다.

진리를 체험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공(空)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해도 삶이 달라진다. 지혜가 100% 완성돼도 인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50% 이해하면 생각이 50% 바뀌게 되고, 10% 이해하면 10% 바뀌게 된다. 생각이 바뀐 만큼 삶에 대한 태도 역시 달라진다.

그렇다면, 팔만대장경의 핵심인 '공'을 알게 되고 깊이 이해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올까.

첫째, 공을 이해하면 남과 비교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일상속에서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다. 나 역시 출가 전에는 그랬다. 나를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했다. 나를 확대하니 폐결핵이란 몸쓸병에 걸려서, 짙은 병을 고치기 위해 들어왔다가 출가까지 하게 된 것이다. 공을 해 비교하지 않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인종, 민족, 이데올로기, 종교를 초월할 수 있다.

둘째, 공을 알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된다. 나도 공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비로소 '중생'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됐다. 전에는 소극적이고 위축돼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당당해졌다.

셋째, 공을 알면 언제 어디서나 주인으로 살 수 있다. 백양사 방장스님이셨던 서용 스님이 강조한 '수처자주(隨處作主)'라는 말이 그것이다.

넷째, 공을 알게 되면 그 무엇과도 소통이 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갈등지수가 제일 높다. 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돈이 연간 약 70조에 달한다고 하니 4대강 사업비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이 사회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것이다.

아가는 방법이라면, 선은 순간깨침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 마저 돈오(頓悟)의 전통을 잃어버리면 점수(漸修)의 방법만 남을 것이다. <아함경>에 보면 금방 결혼한 새댁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 깨닫는 장면이 나온다. 이러한 순간깨침의 전통이 원시불교에도 있었는데, 선이 돈오의 전통을 어렵게나마 귀하게 이어온 것이다. "어떤 것이 부처인가?"라는 질문에, 선사가 "정전백수자(淸潭의 잣나무)"라는 답을 하는 것은 말길과 생각의 길을 끊어주는 선사의 독특한 지도법이다. 깨달음은 주객(主客)과 객관이 무너지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이 철칙이다. 은산철벽(銀山鐵壁)이란 주객이 무너지 자리를 상징한다.

토론자(우바세): "오온이 모두 공하다(五蘊皆空)"고 하는 법문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우 스님: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연기이기 때문에 공한 것이다. 이 세상 어떤 물건이든 독립된 물체가 없다. 지, 수, 화, 풍으로 구성된 물질이든 60조의 세포로 구성된 몸이든 모두 연기로 이뤄진 것이다. 나무, 흙, 돌로 구성된 집을 해

체하면 집은 사라지듯이, 집은 본래 공한 것이다.

행방 스님: 팔만대장경을 공으로 요약하고, 오온이 공한 것을 다시 연기된 자성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하셨다. 이 공은 동시에 무아(無我)라는 의미도 내포한다. 수시로 변화하는 오온은 공한 것이기에 집착할 것이 없고, 집착이 끊어지면 편안해진다. '무아'는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에 공통되는 가르침이다.

고우 스님: 상응부 경전에 보면, 오온개공을 설명하면서 "색(色)도 무아요, 수상행식도 무아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반야심경>은 초기불교의 무아 사상을 잘 계승하고 있다.

도법 스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사건과 용산 참사가 벌어졌을 때, 불교계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만 지극한 관심을 보이고 용산 참사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불교가 불평등한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보는 것은 아닌가.

고우 스님: 불교계가 사회적인 인기에 영향해서 그렇게 반응했다면 그것은 밖으로 추구한 것으로 반성할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도 외적인 추구하고 함께 공과 평상심(平常心)과 같은 내면의 가치를 알고 실천할 수 있었다면 극단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글=김성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선사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순간깨침'으로 체득해 생활 떠나서 불교 말하는 것은 '토끼뽕' 구하는 것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일방 소통'일 뿐이고, 불교의 소통은 '쌍방 소통'이다.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했다. 산은 물이 될 수 없고 물은 산이 될 수 없지만, '공'이란 본질을 보게 되면 산과 물이 소통 된다. 현상만 갖고는 절대 소통이 안된다. '공'이라는 존재원리에서는 산하고 물이 물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게 된다.

오온(五蘊)이 공한 것을 믿고 이해하면 내가 있다는 집착을 안할 것이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과 반대되는 행복할 삶을 살게 된다. 공에 대해 이해하면 지혜가 나와서 각계 각분야에서 갈등과 대립 없이 서로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올 것이다. 나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면 행복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그 길로 간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나와 남이 모두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덕스럽고 당당해지는 길이다. 이것이 누구나 본래부터 가진 '본래 부처'의 길, 깨달음의 길이다.

질의응답

토론자(비구니): 초기불교의 전통과 선의 전통은 무엇이 같고 다른가.

고우 스님: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선의 전통이 다르던 안된다. 보자기의 포장만 다를 뿐 내용물은 똑같다. 대부분의 수행은 참구해서 점진적으로 깨달

불기2553(2009)년 포교결집대회 기록물 공모전

귀의 삼보합니다.

불기2553(2009)년 포교결집대회가 지난 11월 14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1만2천여 사부대중의 동참과 성원에 힘입어 원만히 봉행되었습니다. 이에 동참해주신 사부대중에게 지면을 빌려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본 대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포교결집대회 기록물 공모전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공모명 : 불기2553(2009)년 포교결집대회 기록물 공모전
2. 참여대상 : 포교결집대회 참가 대중
3. 공모 기록물
 - 1) 사진, 동영상, UCC 등 대회 참가과정 및 대회 현장의 모든 기록물
 - 2) 참가후기 : 원고지 10매 내외 분량의 원고 파일 또는 출력물
 - 3) 제출 기록물은 1인당 총 3편 이하로 제한합니다.
4. 접수기간 : 2009년 11월 30일부터 ~ 12월 11일(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접수방법
 - 1) 참가신청서(별첨양식)
 - 2) 인터넷 : 웹하드 (www.webhard.co.kr) ID : pogyowon1 비밀번호 : 1111 (GUEST 폴더 -> 올리기전용 -> 교결집대회 기록물 공모전 폴더)에 제출
 - 3) 우편 : 서울 중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공모전 담당자 (우 110-170)
 - 4) 문의 전화 : 02-2011-1900
6. 시상내역

□ 대 상 : 1편 (50만원)	□ 우수상 : 3편 (각 20만원)
□ 참가상 : 다수 (문화상품권)	
7. 입상자 발표 : 불기2553(2009)년 12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8. 유의사항
 - 참가신청서 양식은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모전 공지사항 또는 웹하드 내리기전용 폴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웹하드 이용 시 본인 이름의 폴더를 만든 후 신청서와 함께 기록물을 올립니다.
 - 우편물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함께 동봉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 기록물을 제출하여 입상한 후 필요할 경우 원본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기록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출판 및 저작권은 포교원에 있습니다.

불기2553(2009)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혜 총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증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룸.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늦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조절법 : 뇌수축에 흡수된 아로아시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렬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문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영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부터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해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이 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렵듯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효 체험신청하세쇼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